

식도·위정맥류환자에 있어서 내시경적 식도정맥류치료후 위정맥류의 형태학적변화 - 5년간의 후향성 추적조사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소화기연구소
조주영^{*}·이국경·홍수진·김진오·이문성·심찬섭

목적: 위정맥류는 1913년 Stadelmann이 처음 보고한 이래, 그 발생빈도에 대해서는 보고자마다 다양하여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Sarin에 의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식도 정맥류와 동반된 위분문부정맥류의 경우 식도정맥류를 치료한 경우 6개월내 59%에서 위정맥류가 없어지며 41%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더 심해지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위저부까지 진행되어 있는 정맥류의 경우 17%만 위정맥류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식도정맥류치료에 따른 위정맥류의 변화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연자들은 본 교실에 식도위정맥류환자로 내시경적 식도정맥류를 치료한 후 5년간의 후향성 추적조사로 위정맥류의 형태학적변화를 고찰하였다. 방법: 대상환자는 총 42명(남:녀 = 27: 15명, 연령:27-65세)였으며 원인질환으로는 간경변증: 32명, 간암을 동반한 간경변증: 10명이었다. Child-Pugh분류 각각 A: 13명, B: 21명 C: 8명이었다.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상 급성 식도정맥류출혈환자는 35명이었으며 최근에 출혈병력이나 고출혈 위험군요소를 가진 식도정맥류환자가 7명이었다. 식도정맥류의 등급은 1등급: 5명, 2등급: 12명, 3등급: 10명, 4등급: 15명이었으며 위정맥류의 모양과 위치는 1군: 위분문부에 근접되어 있으면서 직선형태의 정맥류(GOV1, F1): 17명, 2군: 위분문부에 근접되어 있으면서 연쇄상의 중등도 정맥류(GOV1, F2): 15명, 3군: 위분문부와 위저부에 걸쳐있으면서 연쇄상의 중등도 정맥류(GOV2, F2): 6명, 4군: 위분문부와 위저부에 걸쳐 있으면서 결정상의 종류형 정맥류(GOV2, F3): 4명이었으며 위정맥류는 출혈흔적이나 고출혈위험요소는 전예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위정맥류를 내시경적으로 치료한 군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방법은 식도정맥류를 내시경적 경화요법 또는 결찰요법을 시행한 후 최소한 식도정맥류를 1등급이하로 근질한 후 3개월, 6개월이상 상부 소화관내시경으로 추적관찰(3-60개월)하여 위정맥류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성적: I. 대상환자 총 42명중 위정맥류가 없어지거나 호전된 경우는 22명(52%), 변화가 없는 경우 12명(29%), 악화된 경우 8명(19%)이었다. II. 위정맥류가 호전된 22명중 3개월째 호전된 경우는 8명(36%)이었고 6개월이상 호전된 경우는 14명(64%)이었다. III. 위정맥류의 모양과 위치별로는 1군(GOV1, F1): 17명중 호전된 경우: 16명(94%), 변화가 없는 경우: 1명(6%), 2군(GOV1, F2): 15명중 호전된 경우: 4명(27%), 변화가 없는 경우: 7명(47%), 악화된 경우: 4명(27%), 3군(GOV2, F2): 6명중 호전된 경우: 1명(17%), 변화가 없는 경우: 3명(50%), 악화된 경우: 2명(33%), 4군(GOV2, F3): 4명중 호전된 경우: 1명(25%), 변화가 없는 경우: 1명(25%), 악화된 경우: 2명(50%)이었다. IV. 각군별로 추적기간중 위정맥류의 출혈은 1군: 0/17명, 2군: 3/15명(20%), 3군: 3/6명(50%), 4군: 3/4명(75%)이었다. 결론: 식도·위정맥류환자에 있어서 내시경적 식도정맥류치료에 대한 위정맥류의 장기추적의 결과는 급성출혈 또는 고위험출혈인자가 없는 위분문부에 근접되어 있는 정맥류(GOV1)중 직선형태의 정맥류(F1)는 예방적 치료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연쇄상 중등도의 정맥류(F2)와 위분문부, 위저부에 걸쳐 있는 정맥류(GOV2)는 예방적 치료를 신중히 결정해야 되나 좀더 많은 예에서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60 —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screening)의 의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병연구소, 예방의학교실¹, 의학통계학과²
정정일¹, 한광협, 안상훈, 전재운, 문영명, 서일¹, 김동기²

배경: 간암의 조기진단이 간암 치료의 효과를 높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선별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의 효용성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자는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정기적 선별검사(screening test)를 실시받아 온 환자에서 선별검사의 의의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자는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생각되는 만성 간질환자 및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대상으로 1990년 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적어도 2회이상 3 - 12개월 간격으로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환자의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1990년 1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아 온 환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8년 1개월간 총 25,642명의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11,870명이 간암선별검사 목적으로 1,029명은 지방간으로 검사를 받아 간종양을 제외한 간질환으로 총 12,899명이 25,024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이들의 남녀비는 약 2:1이며 30세 미만이 881명(6.81%), 30대가 1756명(13.57%), 40대 2866명(22.15%), 50대 3228명(24.95%), 60대 2814명(21.75%), 70세 이상이 1392명(10.76%)로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였다. 여자에서는 50대와 60대의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다.

2. 간질환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의 연도별 분포는 90년 2060회, 91년 2129회, 92년 2482회, 93년 3753회, 94년 3526회, 95년 3135회, 96년 3430회, 97년 4352회, 98년 91회로 점차 선별검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의뢰건수가 증가일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동기간중 선별검사에 의해 간암으로 진단된 환자 11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은 없었으며, 30대가 7명(5.9%), 40대 15명(12.6%), 50대 53명(44.5%), 60대 39명(32.8%), 70세 이상이 5명(4.2%)로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였다. 여자에서는 60대의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4. 원인별로는 B형 간염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75.2%, C형 간염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21.3%였으며 B, C형 간염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6.9%에 불과하였다. C형은 40세 이하에서 간암발생율이 전무하였으며 B, C 모두 음성인 경우는 50세 이하에서 간암발생이 없었다.

5. 선별검사에 의해 간암이 발견되는 건수는 90년에 비해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간암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발견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적용초기에 비하여 해가 거듭할수록 간암고위험군에서 간암선별검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조기간암의 발견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암예방에 관련된 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줄 수 있어 대의적 기여도가 높으며 간암의 국가적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